

석유산업의 환경변화와 대응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밤새 안녕하시냐」더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다. 지난 7월 1일 0시를 기해 단행된 東西獨의 화폐통합, 국경개방을 보고 이를 더욱 실감하게 된다. 獨逸의 실존철학자 야스퍼스는 현대를 「新프로메테우스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창조의 거인이요, 도전의 챔피언이었다.

희랍신화에 의하면 제우스신은 부당한 분노 끝에 인간에게 불을 빼앗고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부정에 항거하고 인간의 정의의 편에 섰다. 프로메테우스는 천상에 가서 제우스가 몰래 감추어둔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기 때문에 제우스신으로부터 심한 분노를 샀다. 제우스는 그에게 가혹한 형벌을 주었다. 제우스는 코카서스산의 바위 위에 프로메테우스를 쇠사슬로 결박했다. 낮에는 독수리떼가 날아와서 그의 간장을 뜯어 먹는다. 밤이면 간장이 새로 생긴다. 독수리는 새로 생긴 간장을 또 뜯어 먹는다. 제우스의 가혹한 형벌은 그치지 않았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항복을 요구했다. 항복하면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신의 부정에 항거했다.

희랍어로 프로메테우스는 「예견하는 자」, 「선각자」란 뜻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도전과 용기의 거인일 뿐 아니라 지혜와 예견의 거인이었다. 바야흐로 정유산업은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도전과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그룹협상회의에서 美國측은 유통등 8개 분야의 국내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요구서를 우리 측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는 美國측의 압력과 별도로 현재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16개 세부협상그룹 가운데 서비스협상부문은 가장 빠르게 협상이 진전되고 있어 이달말쯤에는 초안 작성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관세면제등을 위한 양허협상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서비스협정(GATS)을 체결하리라 한다.

“
 이제 석유산업의 개방화와 규제완화는 필연적인
 현실로 우리앞에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개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느냐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대비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다.
 ”

이제 多者間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고, 美國측에 2국간 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
 으로서 국내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은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9월말까지 우리의 시장개방
 스케줄을 작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보험업을 비롯하여 무역업·광고업·영화배급
 업등이 상당부분 개방된데 이어 전면적인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석유산업
 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이 발효되면 석유유통
 과 수송부문부터 개방화·규제완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국적 석유기업 및 산유국
 은 원유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수직적 통합화전략에
 따라 소비국 진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산유국의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현황

(단위 : B/D)

	소 비 국	정 제 능 력	보 유 지 분	관 매 소
쿠 웨 이 트	베 네 룩 스	75,000	100	800
	멘 마 크	55,000	100	1,200
	이 탈 리 아	95,000	75	1,500
	英 國	-	-	1,325
베 네 수 엘 라	西 獨	290,000	50	-
	스 웨 덴	41,000	50	-
	벨 기 에	15,000	50	-
	美 國	625,000	(Varied)	8,000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320,000		-
	美 國	615,000	50	11,500
리 비 아	이 탈 리 아	75,000	75	1,650
	西 獨	90,000	ab. 50	-
아랍에미리트	스 페 인	305,000	12	-
	파 키 스 탄	80,000	40	-
	中 國	60,000	(不明)	-
이 라 크	소 말 리 아	10,000	50	-
	印 度	112,000	13	-
이 란	南 아 프 리 카	75,000	17.5	-
	스 페 인	220,000	34	-
백 시 코	멘 마 크	70,000	100	425
노 르 웨 이				
計			1,590,275	26,400

있다. 특히 산유국들은 歐美지역의 하류부문에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SAMAREC (사우디국영석유정제판매회사)의 거점을 싱가포르에 확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석유제품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석유류수요의 급신장과 유통부문의 낙후성등은 다국적 석유기업 및 산유국의 국내 석유판매업 및 수출입업의 진출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에너지당국은 머지 않은 장래에 메이저와 산유국자본이 국내석유유통부문에 진출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협정(GATS)이 GATT의 무역규제 추가완화조치 및 자본자유화와 같은 시점에서 발효되기 때문에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개방화와 자유화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과 달리 석유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유통부문 개방의 효과는 단기간내에 전체 석유산업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정제업과 유통업이 분리되어 있는 현행

구조상 다국적 석유기업의 판매량 확보는 타국에 비해 용이한 실정이며, 선진국의 다국적 석유기업의 경우 '80년대의 상류부문 진출확대 및 시설고도화를 통한 재조정을 거의 완료하여 우리나라 석유정제업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석유유통구조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부판점)→소비자의 단계로 되어 있다. 앞으로 유통업이 개방되면 이중 대리점과 주유소에 외국자본이 진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대리점에 석유수출입업이 허용된다면 석유메이저나 산유국자본이 본국의 석유제품과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로로 대리점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석유유통업이 개방될 경우 외국자본은 초기에는 전액출자보다 합작투자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여 기존의 일반대리점을 인수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정유사는 정유회사→대리점→주유소의 계열화를 더욱 강화하여 외국자본의 침투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

현행제도별 GATS(서비스협정) 영향 분석

	GATS 관련사항	효 과 분 석
주유소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외자도입법)	내국민 대우 위반	다국적기업의 주유소 취득 가능
대리점 주식지분의 50%이상 외국인 소유에 대한 인가(외자도입법)	내국민 대우 위반	다국적기업의 대리점 취득 가능
무역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외자도입법)	내국민 대우 위반	다국적기업의 석유수입가능 (석유사업법상 수입추천대상)
국적선 이용의무(해운산업육성법)	내국민 대우 위반	원유, 가스, 나프타 운송분야에 대한 외국업체의 진출
대리점 취급지역 규제(석유사업법 시행령)	점진적 자유화 추진	규제 철폐 요구(영업의 광역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이유로 규제 철폐 요구)
석유유통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보유 의무(석유사업법 시행령)	점진적 자유화 추진	규제 철폐요구(기존업자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규제 철폐 요구)
유통단계별 석유가격 규제 (석유사업법 관련 고시)	점진적 자유화 추진	규제 철폐 요구(유통단계별 이윤 규제의 부당성을 이유로 규제 철폐 요구)
주유소의 직거래 규제(석유사업법 시행령)	점진적 자유화 추진	규제 철폐 요구(유통단계별 가격 규제 철폐 요구와 동시에 대두)

이제는 단독으로 전액출자하여 새로운 대리점을 세우려 할 것이다. 이 대리점은 국내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려 할 것이다.

이 단계까지 이르면 석유제품의 유통경로는 국내에서 정제된 석유를 판매하는 유통경로와 외국산 석유를 판매하는 유통경로로 이원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기존의 정유사가 국내 독점공급권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하튼 대리점간의 경쟁은 자본력이 좌우하기 때문에 국내의 기존대리점은 예상보다 빨리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리점 단계의 유통구조가 변하면 그것은 이어 주유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주유소 신설이 완화되어 주유소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리라는 것이다. 주유소는 석유제품 판매의 경쟁과 함께 CVS, TAB코너 운영으로 Total Service Station을 향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현재의 석유유통구조를 뿌리째 흔들 것이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석유판매업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 석유판매업은 석유사업상 허가사항이며, 각시도는 대리점·주유소 허가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각시도가 외국자본에 의한

대리점, 주유소 허가를 제대로 내주지 않을 경우 메이저나 산유국의 불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매지역 제한과 주유소 거리제한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필연적이다.

현재 정부는 석유유통업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①주유소 허가제한 완화 및 자율화 ②폴사인제 확립 ③3·14조정명령 폐지 ④주유소·정유사간 직거래 허용 ⑤휘발유전용 간이주유소 및 주차장주유소설치허용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석유산업의 개방화와 규제완화는 필연적인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개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느냐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대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다. 이 도전에서 도피할 수는 없다.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긴장된 力學으로 파악했다. 바야흐로 석유산업의 환경은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안단테의 시대에서 알레그로 비바체의 시대로 변한 것이다.

세계질서는 지금 급변하고 있다. 회랍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판타 레이(Panta Rhei)」라고 외쳤다. 만물은 유전한다는 뜻이다. 일체가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면 거센 시대조류에 떠밀려 낙오되기 십상이다. 참으로 프로메테우스의 인통찰력과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 신 간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90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펴냄 -